



## 아름다운 언덕, 청양 가파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충청남도의 알프스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연령대가 한 가족처럼 오기종기 모여 사는 칠갑산 자락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바로 '가파(嘉坡)마을'이다.

워낙 오지로 알려진 터라 필자도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큰맘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가파마을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호리병모양의 분지마을로 예로부터 '아름다운 언덕'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커다란 장승이 필자를 반겼다. 또 마을 주변에는 온통 고추밭이 즐비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은 심한 일교차와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는 천혜의 조건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오랜 세월을 걸친



〈청양고추밭〉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청양의 명물인 청양고추의 최대 생산지로도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마을로 유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산물인 구기자를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유일한 마을이기도 하다.

마을에 도착해 대략 2시간 남짓 둘러보았다. 한참 봄철 농번기로 분주한 모습이 어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었으나 왜 충청남도의 알프스라 불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경치가 빼어나다. 한편으론 마을을 미리 둘러 본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이 마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광빈(55세)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예의라고 해두자.

###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이 마을에서 태어난 임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로 마을사업에 뛰어들어 2003년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농촌전통체험마을’을 시작으로 이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팜스테이마을’로 전격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농촌체험마을로서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다.

임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8년도부터 약4년간 공백기가 있었지만, 처음 시작하는



〈구기자 재배 시설〉

마음으로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마을 소득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빈 마을운영위원장〉

지난 해 체험객은 총3,116명이 방문하여 1억 6,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별인 사업중의 하나가 바로 대전광역시에 곧 오픈하게 될 ‘가파원’이라는 농산물 판매장이다. 가파원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은 가파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유기농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파마을이 인정한 농특산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가파마을의 주된 매출을 차지하는 절임배추와 김장 담그기 사업 등을 확장시키기 위해 1사1촌을 늘려나가고, 마을 바로 옆에 위치한 ‘안심사’와 연계한 사업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리고 임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바





로 '가파 한대화 야구장' 건설이었다. 바로 가파권역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야구장 건설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중이라는 것이다.

물론 임 위원장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다. 모든 일에는 마을 주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 하겠다. 바로 여기에 임 위원장의 고민이 있다. "현재 마을에는 총63가구가 남아있다. 젊은층의 참여가 절실한데 아무래도 농번기에는 저마다 농사일로 서로 바쁘다보니 도시에서 찾는 체험객을 제대로 맞기가 어렵고 다양한 마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주로 연세있는 어르신들이 도울 수 있는 두부 만들기, 승경도 놀이, 천연염색, 농촌체험(고추따기 등) 등에 한정해 진행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염색체험장으로 활용되는 폐교된 상갑분교〉



〈김장 담그기 사업〉

이에 대해 서울에서 96년도에 귀농했다는 한 마을주민은 "주민 소득 창출도 물론 중요하고 다양한 체험객을 맞이할 시설 건립도 필요하지만, 정작 마을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파마을의 가장 큰 가치인 '농촌다움'을 살리는 생산적 소비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마을주민의 연령대를 고려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화로의 전환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지역자원과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가파마을은 청양군 지역특산물인 청양고추, 구기자 등과 농산물 재배 및 수확 관련 농업활동, 소형 장승깎기, 두부만들기, 승경도 등 전통체험을 비롯한 쪽천연염색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프로그램은 상시·계절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를 두고 운영중이다. 그리고 체험객을 위한 음식 준비는 부녀회가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특히 '구기자 순나물 비빔밥'이 유명하다

마을을 찾은 체험객들의 입소문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인지 가파마을은 방송·신문을 통한 홍보 이외에도 주변사람들의 입김(?)도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마을 재방문을 기준으로 볼 때 10점 만점에 8점은 되지 않겠느냐고 임 위원장은 말한다.



〈두부만들기 체험〉



〈쪽 천연염색 체험〉



〈승경도 놀이〉



〈숫대 깎기〉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주로 당일치기 방문객이 많은 편”이라면서 “마을농가에서 직접 숙식을 해결하는 ‘농박’ 체험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언덕 마을인 가파마을에는 소위 ‘세 가지 아름다움(3嘉)’이 있다고 한다.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의 생태, 농촌체험을 통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1嘉’, 염색체험을 통한 ‘몸이 아름다워지는 2嘉’ 그리고 넉넉한 인심과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공동체의 따뜻함으로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3嘉’를 체험할 수 있다.

예쁘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듯 가파마을의 아름다움은 예쁨보다는 마을주민의 정과 평온함, 그리고 ‘농촌다움’으로 대체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만큼 거창한 사업이나 멋드러진 건물보다는 작은 경험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을의 모습이 필요하고, 체험객의 입장에서 농촌마을이 갖고 있는 그



〈전통문화전수관 앞 쉼터〉



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 줄 아는 여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시간에 쫓긴 농촌체험 서너가지보다 시골 논두렁을 걸으며 들꽃향기 음미하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정 스님은 말했다.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행복한 거라고...”

## [청양가파마을 패키지 여행]

### ● 찾아가는 길



단체객의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족단위 방문이라면 내비게이션에 '가파마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다보면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은 꼬불꼬불 오르막도 있지만 곳곳하게 가면 된다. (대치초교에서 대치보건지소 방향으로 다리 건너자마자 좌회전한 다음 농소리 경유하면 상갑리가 나옴)

▶ 주소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상갑리 243-1 (T.041-940-2401)

▶ 홈페이지 : <http://gapa.go2vil.org>

### ● 주변관광지

#### ▶ 칠갑산

칠갑산은 해발 561m의 높이로 크고 작은 봉우리와 계곡을 지닌 명산. 주요 명소는 정상, 아흔아홉골, 칠갑산장, 천장호 출렁다리, 장곡사, 정혜사, 자연휴양림, 도림사지 등이 있다. 특히 칠갑산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에는 산철쭉과 벚꽃으로 단장하여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천연림이 현대인들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등 사시사철 등산객들에게 독특한 묘미를 전해준다.

#### ▶ 2012 제13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 | 2012. 9. 7~9 (청양시장 일원)

청양의 대표 축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청양고추장 보리밥 비벼먹기 ▲칠갑산 두부만들기 ▲다문화 음식 ▲약초밥 시식 등 향토음식 코너는 물론, 도시민들에게 이색 체험을 제공하는 ▲김치만들기체험 ▲금줄만들기 ▲구기자 족욕체험 ▲농산물 현장 수확체험 ▲청양요리체험 및 조리시범 ▲짚공예체험 ▲나무 곤충만들기체험 등도 인기가 많다.

